

# 王文璧《中州音韻》의 정체성에 대한 혼동 문제 고찰\*

裴銀漢\*\*

---

## ◁ 목 차 ▷

- I. 引言
  - II. 《中州音韻》의 書名에 대한 혼동
  - III. 《中州音韻》의 音韻體系에 대한 혼동
  - IV. 《中州音韻》의 著者에 대한 혼동
  - V. 結語
- 

## I. 引言

漢語音韻學의 연구 과정에 있어서 近代漢語의 音韻體系에 대한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으로는, 元代 周德清의 《中原音韻》을 중심으로 明代 徐孝의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과 《合併字學集韻》에 이르기까지 北方音系를 반영하고 있는 자료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 近代漢語라는 共時的인 각도에서 보면, 南方音系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학계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현상은 近代漢語 北方音系에 대한 분석이 現代 普通話의 근원과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와 일맥상통하기에, 北方音系로 집중된 연구 동향은 자연스러운 조류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北方音系에 대한 연구가 南方音系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중된 배경을 되짚어 보면, 普通話의 면모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학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원론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標準語

---

\* 이 연구는 2010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제정 과정에서 粵方言이나 吳方言 등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北方方言의 입지를 정당화하고 역사적 배경에 근거한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식의 뿌리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학술적 필요성과 문화적·정치적 인식을 바탕으로, 近代漢語 이후 普通話에 이르기까지의 北方音系에 대한 연구는 질적·양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통칭 北音學이라는 연구 영역으로 분류되어, 전통적인 분류법으로서의 古音學·今音學과 더불어 漢語音韻學 연구 분야의 통시적인 축을 형성하고 있다.

北音學 연구의 핵심 자료로 운용되고 있는 《中原音韻》은, 韻書의 발전사에 있어서 中古漢語와 近代漢語의 분수령을 이루는 기념비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切韻系韻書」가 정통의 지위를 점하고 있었던 시대상을 고려하면, 周德清의 《中原音韻》 편찬은 전통과 정통의 권위를 과감히 탈피한 일대 혁신으로 평가받기에 손색이 없다.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탄생한 《中原音韻》은 近代漢語 北方音系의 실질적인 音韻體系를 반영하고 있으며, 元曲 用韻의 실용성을 바탕으로 曲壇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中原音韻》 이후 「中原系韻書」로 지칭되는 일련의 曲韻書들이 연이어 편찬되었던 韻書의 발전 양상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sup>1)</sup>

「中原系韻書」는 편찬 시기에 따라 近代漢語 音韻體系의 通時的 변화 과정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韻書가 기초한 方言體系에 따라서 共時的 차이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유효한 자료들이다. 이 「中原系韻書」에 대한 역대 학계의 연구 동향은, 각 韻書의 형성 배경이 《中原音韻》을 모태로 하여 改訂과 增補 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과이기에, 개별 韻書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주로 《中原音韻》과의 비교를 통해서 차이점과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각 韻書의 형성 배경과 《中原音韻》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中原音韻》의 절대적인 영향력에 기인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선호되는 연구 방법이었다. 「中原系韻書」에 대한

1) 《中原音韻》 이후에 간행된 曲韻書의 대표적인 著作으로는 元·卓從之의 《中州樂府音韻類編》(1351년), 明·朱權의 《瓊林雅韻》(1398년), 明·陳鐸의 《詞林要韻》(1483년)(별칭 《菘斐軒詞林要韻》 혹은 《詞林韻釋》), 明·王文璧의 《中州音韻》(1503년경), 明·范善濤의 《中州全韻》(년대 미상), 明·王驥德的 《南詞正韻》(년대 미상), 清·毛先舒의 《南曲正韻》(년대 미상), 清·王鶴의 《中州音韻輯要》(1781년), 清·沈乘磨의 《韻學驪珠》(1792년경), 清·周昂의 《新訂中州全韻》(년대 미상) 등이 있다.

연구 성과 중에서,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는 근래 학계의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료로 明代 王文璧의 《中州音韻》을 꼽을 수 있겠다. 《中州音韻》이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주된 연유는, 이 韻書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변화와 진전을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쟁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바꾸어 말하면, 《中州音韻》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상당 부분에서 여전히 공인된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대 음운학계의 《中州音韻》에 대한 관심은, 中國言語學이 現代化의 궤도로 접어들면서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관심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던 대표적인 예로, 일찍이 石山福治(1925)에서 《中原音韻》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 內閣文庫에 소장된 初刊本<sup>2)</sup> 《中州音韻》의 대략적인 상황을 학계에 소개한 이후,<sup>3)</sup> 중국 음운학계에서는 王文璧의 《中州音韻》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31년과 1932년에 《北平晨報·學園》에는 趙蔭棠과 白滌洲, 杜璟 등이 《中州音韻》에 관한 견해를 연이어 게재하였고,<sup>4)</sup> 1935년에 羅常培는 《天津益世報·讀書周刊》第16期(1935년 9월 19일)에 〈中州音韻和十三韻〉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石山福治(1925)에서 소개되었던 《中州音韻》 관련 사항은, 趙蔭棠(1936) 張世祿(1938) 등 초창기의 연구 성과에서 王文璧 《中州音韻》에 대한 인식에 기초적인 자료 제공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佐佐木猛(1977)에서는

2) 본 版本은 “內閣本”(許德寶, 1991: 50-52), “張疊刻本”(甯忌浮, 2009: 413) 등으로 지칭되기도 하였으나, 배은한(2008: 167-168, 171)의 논의에 따라 1499년에서 1503년 사이에 간행된 “初刊本”으로 명명한다. 한편, 上海圖書館에 소장된 弘治十七年(1504) 간행본은 “弘治本”(許德寶, 1991), “蔡清序本”(甯忌浮, 2009: 413) 등으로 지칭되지만, 본고에서는 배은한(2006, 2008)에서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重刊本”으로 명명한다.

3) 石山福治 《考定中原音韻》(《東洋文庫論叢》第一, 東京, 財團法人東洋文庫, 1925年).

4) 게재 순서에 따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趙蔭棠 〈中州音韻流源考〉(第13期: 1931년 1월 7일)

白滌洲 〈中原音韻與中州音韻之比較觀〉(第18期: 1931년 1월 14일)

趙蔭棠 〈關於中原音韻與中州音韻〉(第20期: 1931년 1월 16일)

杜璟 〈中州音韻的作者〉(第137期: 1931년 7월 23일)

趙蔭棠 〈關於中州音韻〉(第140期: 1931년 7월 28일)

趙蔭棠 〈中州音韻各版本的關係與發生的次序〉(第258·259期: 1932년 3월 4일)

《中州音韻》의 注音과 小韻을 대상으로 音韻體系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연구 진행에서 音韻體系 분석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sup>5)</sup> 1980년대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학위 논문과 단편 논문 등 다양한 형식의 연구 성과가 속출하였고, 2007년에는 張竹梅의 박사학위 논문 《中州音韻研究》가 中華書局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中州音韻》 연구의 기존 성과를 집대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다양하고 풍부하게 축적된 연구 성과에 대한 검토 작업을 통해서, 기존 논의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후속 연구 진행을 위하여 의미있는 작업으로 사료된다.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近代漢語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이 北方音系로 집중된 연구의 편향성을 반영하는 사례로, 일부 연구 성과에서의 《中州音韻》에 대한 평가와 인식의 오류를 들 수 있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中州音韻》은 《中原音韻》의 韻部 귀납과 小韻의 배치 및 韻字 배열 방식 등 외형상의 체계를 답습하면서, 韻字에 釋義를 부기하고 각 小韻에 注音を 표기하는 방식으로 《中原音韻》에 대한 改訂 增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韻書이다. 이로 인해서 《中州音韻》은 《中原音韻》의 增補本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처럼 《中州音韻》의 태생적 한계와 외형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역대 문헌상에서 《中州音韻》을 周德清 혹은 卓從之의 저작으로 기재하였거나, 書名을 “王文璧의 《增注中原音韻》”이나 “王文璧의 《增訂中州音韻》”으로 표기하는 등 혼동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런 연유로 일부 논저에서는 王文璧의 《中州音韻》에 대하여 書名·音韻體系·著者 등 고유의 정체성마저 혼동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본고는 《中州音韻》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 중에서, 《中州音韻》의 書名·音韻體系·著者 등 정체성에 혼동을 초래하는 논의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의 대표적인 견해를 분석하여, 각종 혼동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합당한 평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5) 佐佐木猛 〈明·王文璧中州音韻の性格〉(《均社論叢》VOL.5, 京都, 京都大學文學部, 均社, 第4卷 第1期, 1977년 6월).

## II. 《中州音韻》의 書名에 대한 혼동

《中州音韻》의 書名에 대한 혼동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中原音韻》과의 혼동 현상으로, 역대 曲韻書 관련 문헌에서 간혹 周德清의 《中原音韻》을 “中州音韻”으로 지칭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둘째는 卓從之의 《中州樂府音韻類編》이 書名의 장황함으로 인해 흔히 “中州音韻”으로 약칭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한 명칭상의 혼동 현상은 일부 연구 성과의 논지 파악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기도 하였다.

書名の 표기에 있어서 《中原音韻》과 《中州音韻》의 혼동 현상은, 「中原」과 「中州」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동일성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지리적인 개념으로서의 「中原」은 黃河 중·하류 지역을 지칭하며, 河南省의 대부분 지역과 山東省 서부 및 河北·山西省 남부 지역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는 河南省 일대를 지칭하기도 한다. 한편, 지리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中州」의 유래는, 고대 중국의 행정구역 구성 상황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尚書·禹貢》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夏王朝 시기에 夏禹氏가 冀州·兗州·青州·徐州·揚州·荊州·豫州·梁州·雍州 등의 아홉 개 지역, 즉 九州<sup>6)</sup>로 구성된 행정구역을 설정하였다고 한다. 이 중에서 豫州는 현재의 河南省 일대로, 지리적으로는 九州 중에서 중심 지역에 해당하므로 「中州」라고 통칭하게 되었다. 九州의 중심, 즉 中國의 중심을 의미하는 「中州」와 「中原」은 지리적인 개념으로

6) 九州의 구체적인 지리적 위치는 현 행정구역과 정확히 대응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위치는 다음과 같다.

冀州: 河北省 중남부 일대.

兗州: 山東省 서남부 일대.

青州: 山東半島의 중부 일대, 泰山 및 渤海 연안.

徐州: 山東省 동남부 일대, 江蘇省 長江 이북 지역.

揚州: 淮河 혹은 長江 이남의 中國 동남부 일대.

荊州: 湖北省과 湖南省 일대, 河南·貴州·廣東·廣西省의 일부 지역.

豫州: 河南省 일대.

梁州: 陝西省 일대.

雍州: 陝西省 중북부, 甘肅省 일부 지역, 青海省 동북부, 寧夏回族自治區 일대.

구체적인 지역을 나타내는 용법보다는, 中國의 중심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역대 문헌에서는 흔히 동일시되어 통용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中原音韻”과 “中州音韻”이라는 책은 동일한 명칭으로 인식되어, 혼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헌에 기재된 사례에서 두 명칭을 혼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中原音韻》의 序文으로 작성된 虞集<sup>7)</sup>의 〈中原音韻序〉에서 《中原音韻》을 “中州音韻”으로 지칭한 예를 들 수 있겠다.

高安周德清, 工樂府, 善音律, 自著《中州音韻》一帙。(高安 출신의 周德清은 樂府에 조예가 깊고 音律에 능하였으며, 《中州音韻》 한 질을 편찬하였다.)<sup>8)</sup>

책을 오인하였을 개연성이 높지 않은 序文에서, 《中原音韻》을 “中州音韻”이라는 책명으로 기재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周德清은 〈中原音韻正語作詞起例〉의 第8條에서, 《中原音韻》을 완성하기 전에 草稿가 일부 유통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草稿의 책명을 “中州音韻”으로 명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바꾸어 말하면, 虞集이 “中州音韻”이라는 책명의 저작을 접해보았기 때문에, 序文에서 “中州音韻”이라는 책명을 언급했을 가능성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현재 파악된 자료에서는, 실제로 周德清의 《中原音韻》 草稿가 “中州音韻”이라는 책명으로 유통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단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虞集이 단순히 「中原」과 「中州」라는 동일한 의미의 용어를 혼동하여, 周德清의 《中原音韻》을 “中州音韻”이라는 책명으로 표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周德清의 《中原音韻》을 “中州音韻”으로 표기한 사실이, 단순한 용어상의 혼동인지, 아니면 실제로 周德清이 “中州音韻”이라는 책명을 사용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역대 문헌상에서 周德清의 저작을 “中州音韻”으로 표기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7) 虞集(1272-1348): 元代の 저명한 학자로, 揭傒斯·柳貫·黃潛과 함께 元儒四家로 꼽힌다. 詩에도 능하여 揭傒斯·范梈·楊載와 더불어 元詩四家라고도 한다. 奎章閣侍書學士를 역임하였다.

8) 藝文印書館 影印本 《中原音韻》(臺北, 藝文印書館, 1979年, 第3版), 2쪽.

張豊 〈中州音韻後序〉(1499-1503년경):

說者以《中原雅音》即《中州音韻》，高安周德清先生所著也。分韻定字，虞文靖公識之詳矣。(《中原雅音》이 바로 《中州音韻》이라고 했는데, 이는 高安 周德清 先生이 편찬한 것이다. 이 책의 韻部 귀납과 韻字 배열에 대해서는 虞文靖公(虞集)이 序文에서 상세히 적어놓았다.)<sup>9)</sup>

蔡清 〈中州音韻序〉(1504년):

蓋天地之中氣在中國，中國之中氣在中州。氣得其中，則聲得其正，而四方皆當以是爲的焉。此元高安周德清先生之《中州音韻》所以爲人間不可無之書也。(무릇 온 세상의 중심 기운은 中國에 있고, 中國의 중심 기운은 中州에 있다. 기운이 중심에 있으면, 소리도 正音의 지위를 점하게 되니, 온 세상에서 정통으로 여기고 따르게 되는 법이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元代 高安 周德清 先生의 《中州音韻》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책으로 추앙받는 이유이다.)<sup>10)</sup>

沈寵綏 《度曲須知·宗韻商疑》(1639년):

昔方諸生(王伯良別號)有曰:“周氏作《中州音韻》，其功不在於合而在於分。”(전에 方諸生(王伯良의 別號, 즉 王驥德)은 “周氏(周德清)가 《中州音韻》을 편찬하였는데, 그 공로는 합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눈 데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sup>11)</sup>

이상에서 인용된 서술 중, 張豊의 〈中州音韻後序〉와 蔡清의 〈中州音韻序〉는 王文璧 《中州音韻》의 序文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序文에서 “中州音韻”이라는 書名을 周德清의 저작으로 기술한 연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개연성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첫째, 序文 작성자인 張豊와 蔡清이 周德清의 “中州音韻”이라는 書名의 저작을 접해보았거나, 王文璧이 《中州音韻》의 편찬 과정에서 周德清의 “中州音

9) 본 〈中州音韻後序〉는 일본 內閣文庫에 소장된 初刊本 《中州音韻》의 卷末에 수록되어 있는데, 중간 이하는 훼손되어 전반부만 남아 있다. 후반부가 훼손된 상태이기에 본 〈後序〉의 저작과 작성 년대를 명확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重刊本 《中州音韻》에 수록된 蔡清의 〈中州音韻序〉와 관련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張豊가 1499년부터 1503년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배은한 〈王文璧 《中州音韻》의 版本 問題 考察〉, 《中國語文論譯叢刊》, 서울, 中國語文論譯學會, 第18輯, 2006년 7월, 264-265쪽 참조.)

10) 上海圖書館 소장 重刊本 《中州音韻》 卷頭에 수록. “弘治十七年……南京吏部郎中晉江蔡清書.”

11) 沈寵綏 《度曲須知·宗韻商疑》(中國戲曲研究所《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五,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59年, 第1版), 234쪽.

韻”이라는 책명으로 명명된 저작을 底本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정은 周德淸의 《中原音韻》이 “中州音韻”이라는 책명으로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추정이 되겠다. 둘째, 張鼎와 蔡淸이 단순히 「中原」과 「中州」라는 용어를 혼용한 결과, 《中原音韻》을 “中州音韻”으로 표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沈寵綏의 《度曲須知·宗韻商疑》에서는 方諸生(王驥德)의 《曲律》을 인용하면서 周德淸의 저작을 “中州音韻”으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曲律》의 해당 부분 서술은 “作曲, 則用元周德淸《中原音韻》。…… 蓋周之爲韻, 其功不在於合而在於分。”<sup>12)</sup>으로 기재되어 있어, 《度曲須知》에서 “周氏作《中州音韻》”으로 표기된 부분과는 책명에서 문자상의 차이가 있다. 이는 沈寵綏가 王驥德의 서술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中原」과 「中州」를 혼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이처럼 周德淸의 《中原音韻》을 “中州音韻”으로 표기한 사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王文璧의 《中州音韻》을 별도의 책명으로 지칭한 예도 있었다. 일례를 들면, 王國維는 《曲錄》에서 清代 錢曾의 《也是園書目》에 근거하여 王文璧의 저작을 “增注中原音韻”이라는 책명으로 기재하였고, 오히려 “中州音韻”이라는 책은 卓從之의 저작으로 단정하고 있다.

《中州音韻》一卷, 《嘯餘譜》本。元卓從之撰。《嘯餘韻譜凡例》云: “《中州韻》, 宋太祖時所編。”其說無稽。茲從《也是園書目》定爲卓從之撰。《中州音韻》: 總一卷, 《嘯餘譜》本, 元代卓從之 撰。《嘯餘譜·凡例》<sup>13)</sup>에 “《中州韻》은 宋代太祖 시기에 편찬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근거가 없는 억설이다. 이에 《也是園書目》을 근거로 하여 卓從之가 편찬한 것으로 판단한다.)

《增注中原音韻》一卷, 見《也是園書目》。明王文璧撰。《增注中原音韻》: 總一卷, 《也是園書目》에 수록되어 있음。明代王文璧 撰。<sup>14)</sup>

12) 王驥德 《曲律·論韻第七》(中國戲曲研究所《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四,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59年, 第1版), 110-111쪽.

13) 王國維의 《曲錄》에서는 《嘯餘韻譜凡例》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嘯餘譜·凡例》로 바로잡았다.

14) 王國維 《曲錄》(羅振玉 等 觀堂遺書刊行會《海寧王忠愍公遺書》第4集), 卷六, 雜劇傳奇總集部, 9b-10a쪽.



王國維의 《曲錄》은 〈宋金雜劇院本部〉, 〈雜劇部上〉, 〈雜劇部下〉, 〈傳奇部上〉, 〈傳奇部下〉, 〈雜劇傳奇總集部〉 등 총 6권에서 3178종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 제시와 객관적 분석으로, 曲韻 관련 후속 연구에 자료적인 측면에서 영향력이 지대한 역작으로 꼽힌다. 하지만 상기 서술은 명백한 오류로, 후속 연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嘯餘譜》에는 卓從之의 저작이 수록된 바가 없고, “中州音韻”이라는 書名으로 수록된 저작은 다름 아닌 王文璧의 《中州音韻》이다. 이에 대해서는 《中州音韻》의 여타 版本과 대조해 보면 자명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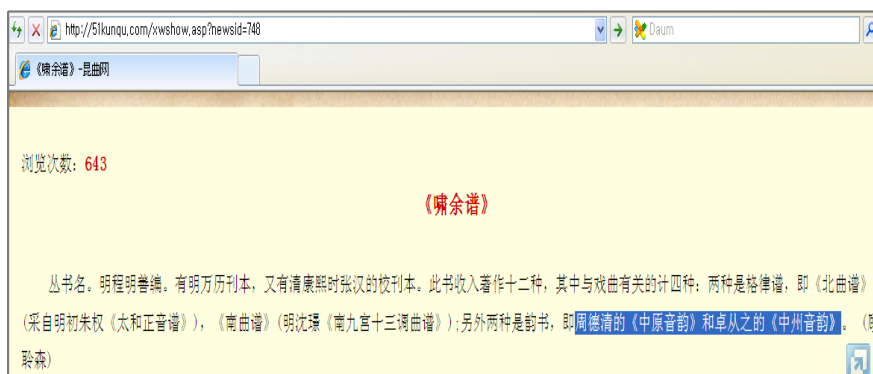
한편, 〈嘯餘譜·凡例〉의 第9條에 “《中州韻》, 宋太祖時所編。”이라고 기재된 사항에 근거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각종 추론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嘯餘譜·凡例〉에서의 “《中州韻》”과 王國維가 근거하였다고 하는 《也是園書目》의 “《中州韻》”은 별개의 저작으로 판단된다. 우선, 《也是園書目》에 수록된 “《中州韻》”은 卓從之《中州樂府音韻類編》의 약칭이라는 사실이 후속 연구 성과에서 입증되었다.<sup>15)</sup> 반면, 〈嘯餘譜·凡例〉에 기재된 “《中州韻》”은 실체 파악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王文璧의 《中州音韻》이나 卓從之의 《中州樂府音韻類編》은 아니라는 사실을 〈嘯餘譜·凡例〉의 第10條에 기재된 “《中原音韻》, 一以正《中州韻》之訛…….”라는 구절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겠다. 〈嘯餘譜·凡例〉에서는 周德清이 《中原音韻》을 편찬할 때 이미 “《中州韻》”이라는 저작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전제하에, “周德清이 《中州韻》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라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논지에 근거한다면, 여기에서의 “《中州韻》”이 《中原音韻》보다 후에 출현한 卓從之의 《中州樂府音韻類編》이나 王文璧의 《中州音韻》은 아니라는 사실만은 확정할 수 있겠다.

물론, 《嘯餘譜》의 편찬자인 程明善이 王文璧의 《中州音韻》에 대해서 “宋太祖時所編”한 “《中州韻》”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가정해 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본

15) 何九盈 《中國古代語言學史》(廣州, 廣東教育出版社, 2000年, 第2版), 207쪽: “大概因爲卓從之的書名太長吧, 所以它的簡稱有四種之多。如楊朝英稱之爲《北腔韻類》, 《也是園書目》稱之爲《中州韻》, 還有的記載簡稱之爲《中原音韻類編》或《音韻類編》。(아마도 卓從之의 저작은 書名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었는지 약칭이 4가지나 된다. 예를 들면, 楊朝英의 《朝野新聲太平樂府》에서는 《北腔韻類》로 약칭하였고, 錢曾의 《也是園書目》에서는 《中州韻》으로 약칭하였다. 어떤 문헌에서는 《中原音韻類編》이나 《音韻類編》이라는 약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叢書에 수록된 《中原音韻》의 卷頭에는 “周德清”이라고 저자명을 밝혀 놓았지만, 《中州音韻》에는 저자 표기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程明善이 《中州音韻》을 《中原音韻》보다 앞선 저작으로 판단하고, “中州音韻”이라는 書名으로 수록된 저작을 〈凡例〉에서는 “《中州韻》”으로 지칭했을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嘯餘譜》에서 《中原音韻》은 《北曲譜》(朱權의 《太和正音譜》)에 이어서 수록되어 있고, 《中州音韻》은 《南曲譜》(沈璟의 《南九宮十三調曲譜》)의 다음에 수록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程明善이 《中州音韻》을 南曲 韻書로 분류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北曲에 이어서 南曲이 흥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착각했을 개연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程明善이, 《中州音韻》을 宋 太祖 시기의 “《中州韻》”으로 간주했을 가능성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宋 太祖 시기에 간행된 《中州韻》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嘯餘譜·凡例〉의 第10條에 기재된 바와 같이, 周德清이 《中州韻》의 오류를 바로잡아 《中原音韻》을 편찬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程明善이 “《中州韻》, 宋太祖時所編。”으로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王國維는 “其說無稽”라고 판단하였지만, 《也是園書目》에 기재된 “中州韻”이라는 書名에 근거하여 《嘯餘譜》에 수록된 《中州音韻》을 卓從之의 저작으로 간주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王國維 《曲錄》의 영향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蘇州戲曲藝術研究所의 研究員을 역임했던 昆曲 분야의 권위자인 顧聆森이 작성한 昆曲 소개 Website의 관련 사항 서술에서도 동일한 오류가 발견된다.<sup>16)</sup>



16) <http://51kunqu.com/xwshow.asp?newsid=748> 참조.

이러한 오류는 책명의 혼동 현상이 초래한 착오인데, 《嘯餘譜》에 “中州音韻”이라는 책명으로 수록된韻書는 卓從之의 《中州樂府音韻類編》과는 별개의 저작으로, 南曲 用韻을 위해 편찬된 王文璧의 《中州音韻》이다. 한편, “中州韻”이라는 동일한 책명으로 王國維의 착오를 초래했던 《也是園書目》의 “中州韻”은 卓從之《中州樂府音韻類編》의 약칭이고, 《嘯餘譜·凡例》에 기재된 “中州韻”은 실제 파악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中州樂府音韻類編》이나 《中州音韻》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王國維《曲錄》 등의 상기 오류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中州音韻》과 《中州樂府音韻類編》의 책은 일부 연구 성과에서 혼동이 우려되어 논지 파악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中州樂府音韻類編》은 책명의 장황함으로 인해 일부 叢書나 書目 등의 문헌에서 “中州音韻”이라는 약칭으로 기재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王文璧의 《中州音韻》이 학계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국내외 일부 연구 성과에서 책명 혼동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韻書 관련 연구 분야에서 工具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中國傳統語言學要籍述論》이나 《韻學古籍述要》 등 일부 저작의 《中州樂府音韻類編》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中州樂府音韻類編》의 약칭으로 “中州音韻”이라는 별칭을 병기하여 후속 연구에 혼동을 야기한 예를 들 수 있다.

此書又名《中原音韻類編》、《北腔韻類》、《中州音韻》，楊朝英簡稱爲《韻編》，一卷。(이 책(《中州樂府音韻類編》)은 《中原音韻類編》·《北腔韻類》·《中州音韻》이라는 별칭이 있으며, 楊朝英의 《朝野新聲太平樂府》에서는 《韻編》으로 약칭하기도 하였다. 총一卷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7)</sup>

元燕山(在今河北)人卓從之撰, 又名《中州音韻》、《中原音韻類篇》。(元代 燕山(현 河北 소재) 출신 卓從之가 편찬하였으며, 《中州音韻》·《中原音韻類篇》이라는 별칭이 있다.)<sup>18)</sup>

이러한 저작에서 제시된 별칭들은 역대 叢書나 書目 등의 기재 사항에서 유래를

17) 姜聿華 《中國傳統語言學要籍述論》(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92年, 第1版), 460쪽.

18) 李新魁·麥耘 《韻學古籍述要》(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93年, 第1版), 348쪽.

찾아볼 수 있지만, 별도의 부연 설명을 명기하지 않은 채 별칭만을 수록해 놓음으로써, 후속 연구 과정에서는 자료 운용상의 혼동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해당 서술을 그대로 연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葉寶奎의 《明清官話音系》에서는 《中國傳統語言學要籍述論》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轉載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sup>19)</sup> 한편, 일부 연구 성과에서는 《中州樂府音韻類編》의 정식 명칭을 “中州音韻”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中州樂府音韻類編》이나 《中原音韻類編》을 별칭으로 소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卓從之의 저서와 王文璧의 저서에 대하여 혼동을 초래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中原音韻》問世不久，曾出現了一部《中州音韻》，元卓從之編。《中州音韻》，又名《中州樂府音韻類編》，也有人稱之爲《中原音韻類編》，元楊朝英編《朝野新聲太平樂府》時收有此書。《中原音韻》이 편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찍이 元代의 卓從之는 《中州音韻》이라는 저작을 편찬하였다. 《中州音韻》은 《中州樂府音韻類編》으로 지칭되기도 하였는데, 혹자는 《中原音韻類編》이라고도 하였다. 元代의 楊朝英이 《朝野新聲太平樂府》를 편찬하면서 이 책을 수록해 놓았다.)<sup>20)</sup>

또한 張世祿(1938)에서는 目次에서 《中州樂府音韻類編》과 《中州音韻》을 각각 “卓從之的《中州音韻》”, “王文璧的《增訂中州音韻》”<sup>21)</sup>으로 지칭하여, 書名 표기상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본문의 서술 과정에서도 “卓從之的《中州音韻》”, “王文璧的《中州音韻》”<sup>22)</sup> 등으로 두 韻書의 書名을 동일하게 지칭하여 명칭상의 혼동 양상을 내포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 성과 중에는 장재웅(2001, 2002)에서 《中州樂府音韻類編》의 약칭으로 “中州音韻”을 사용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장재웅(2001, 2002)은 《中州樂府音韻類編》과 《中原音韻》 두 韻書의 小韻 및 각 小韻에 수록된 韻字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분야의 후속 연구에 학술적 기여도가 크게 평가된다. 하지

19) 葉寶奎 《明清官話音系》(廈門, 廈門大學出版社, 2001年, 第1版), 80쪽.

20) 趙誠 《中國古代韻書》(北京, 中華書局, 1979年, 第1版, 2003年北京新第1版), 95쪽.

21) 張世祿 《中國音韻學史》(上海, 商務印書館, 1938年, 初版 /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年, 臺7版), (下), 目次 3쪽.

22) 張世祿 《中國音韻學史》(上海, 商務印書館, 1938年, 初版 /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年, 臺7版), (下), 221-236쪽.

만 핵심 자료인 두 韻書 이외에 王文璧의 《中州音韻》도 방증 자료로 운용되었던 관계로, 서술 과정에서 卓從之의 《中州樂府音韻類編》과 王文璧의 《中州音韻》이 동시에 언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卓從之의 《中州樂府音韻類編》은 “《中州音韻》”으로 약칭하여 서술하고, 王文璧의 《中州音韻》은 “王文璧의 《中州音韻》”으로 저자명을 병기하여 구분하고 있으나, “《中州音韻》”이라는 동일한 서명이 혼재하고 있어, 독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中州音韻》의 書名과 관련된 혼동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中原音韻》과 《中州音韻》의 書名을 혼동하게 된 원인은, 「中原」과 「中州」라는 용어의 의미가 지니는 동일성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유추할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中州音韻》이 《中原音韻》의 增補本 형식을 취하고 있는 태생적 한계와 외형적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이로 인하여, 역대 문헌상에서 《中原音韻》의 書名을 “中州音韻”으로 혼용하였거나, 《中州音韻》의 書名을 “增注中原音韻” 혹은 “增訂中州音韻” 등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둘째, 《中州樂府音韻類編》과의 書名 혼동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근원은, 일부 叢書나 書目 등의 문헌에 기재된 약칭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겠고, 《中國傳統語言學要籍述論》이나 《韻學古籍述要》와 같은 工具書 성격의 저작에서 과급된 영향력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혼동 현상에 대해서는 근래의 후속 연구에서 이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기에, 관련 문헌의 운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연구 성과의 학술적 성취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엽적인 문제로 사료된다. 다만 王國維의 《曲錄》이나 顧聆森의 《嘯餘譜》 관련 부분 서술에 기재된 바와 같이, 書名의 혼동으로 인하여 《嘯餘譜》에 수록된 《中州音韻》을 卓從之의 《中州樂府音韻類編》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 《中州音韻》의 著者 문제와 더불어 자료 운용상의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 Ⅲ. 《中州音韻》의 音韻體系에 대한 혼동

書名의 혼동이라는 지엽적인 문제와는 달리, 일부 연구 성과에서는 《中州音韻》의 音韻體系 자체를 혼동한 경우도 있었다. 이 문제는 近代漢語를 비롯한 漢語音

韻學의 전반적인 연구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심도있는 분석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연구 성과에 나타난 《中州音韻》의 音韻體系에 대한 논의는, 크게 南方音系說·北方音系說·混合音系說 등의 세 가지 견해로 구분된다.

南方音系說은 일찍이 趙蔭棠(1936)과 張世祿(1938) 등에서 관련 견해가 제기되었고, 1980년대 이후 활발하게 논의된 후속 연구 성과에서의 분석과 검증을 통해, 현재 학계에서 비교적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견해이다. 石山福治(1925) 이후 중국 音韻學界에서 《中州音韻》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초창기에, 趙蔭棠(1936)에서는 王文璧이 南曲의 用韻을 위하여 《中州音韻》을 편찬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中原音韻》과의 音韻體系 차이를 본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繼《蓁斐軒詞韻》而起者，則爲王文璧之《中州音韻》。……王文璧是北韻變爲南韻的中堅人物。《蓁斐軒詞韻》(1483年，明·陳鐸，別칭《詞林韻釋》《蓁斐軒詞林要韻》《詞林要韻》 등)의 뒤를 이어 등장한 것이 바로 王文璧의 《中州音韻》이다。……王文璧은 元曲 중심의 北韻이 南曲 중심의 南韻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다.)<sup>23)</sup>

趙蔭棠(1936)에서 제기된 南方音系說은 張世祿(1938)에서 실질적인 근거가 보장됨으로써 설득력이 더해졌다. 張世祿(1938)에서는, 《中原音韻》은 平聲을 陰과 陽으로 분리하였고 《中州樂府音韻類編》은 陰과 陽 외에도 陰陽을 추가로 분리하여 聲調 자체의 분류 체계를 설정하였지만,<sup>24)</sup> 《中州音韻》은 平聲의 陰·陽 구분을 폐지하고 聲母의 淸·濁으로 대체한 점을 주목했다. 이러한 사실에 따라, 《中州音韻》은 《中原音韻》과 《中州樂府音韻類編》에 반영된 北方音系와는 달리 聲母의 淸濁 구분이 존재하는 南方 方言에 기초하여, 北曲韻의 南化 양상을 반영하고

23) 趙蔭棠 《中原音韻研究》(上海，商務印書館，1936年，初版 / 1956年，重印第1版)，43-45쪽.

24) 周德清은 〈中原音韻正語作詞起例〉第8條에서, “墨本” 형태의 《中原音韻》草稿에서는 平聲이 陰·陽·陰陽 세 부류로 구분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卓從之의 《中州樂府音韻類編》이 “墨本” 형태의 《中原音韻》草稿를 底本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겠다.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北音系統上陰、陽調의 區分, 在南方的人看來, 就不容易明白, 所以初期南曲的韻書, 如《瓊林雅韻》、《菴斐軒詞林要韻》以至王文璧의《中州音韻》, 都把周、卓的陰、陽字樣取消; 這實在是北曲韻의 第一步南化, 一方面受了《洪武正韻》의 影響, 另一方面也因地域의 關係. …… 我們看王文璧所增의 反切, 正是清、濁分紐, 和《洪武正韻》의 聲紐系統相同; 牠們把陰、陽取消, 正是表明北音韻書裏陰、陽之分, 不適用於南方方音。(北方音系 聲調의 陰·陽 구분은, 南方人들의 立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이었다. 그리하여 《瓊林雅韻》과 《菴斐軒詞林要韻》, 王文璧의 《中州音韻》 등과 같은 초기의 南曲 韻書들은 《中原音韻》과 《中州樂府音韻類編》의 陰·陽 구분을 폐지하였던 것이다. 이는 바로 北曲韻이 南化하기 시작한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한편으로는 《洪武正韻》의 影響을 받은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적 影響에 기인한 것이다. …… 王文璧이 增補한 反切은 清·濁으로 聲母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洪武正韻》의 聲母體系와 동일하다. 이러한 陰·陽 구분의 폐지는 바로 北方音系 韻書에서의 陰·陽 구분이 南方 方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sup>25)</sup>

그런데 張燕(2006) 등 일부 연구 성과에서는, 張世祿(1938)의 체례에서 第六章의 第三節 “近代『北音韻書』의 源流” 부분에 《中原音韻》을 비롯한 《中州樂府音韻類編》 등 소위 “北音韻書”들과 함께 《中州音韻》을 배치하여 서술하고 있는 章節 분류법에 근거하여, 張世祿(1938)의 견해를 北方音系說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본고는 위에서 분석한 해당 부분의 서술 내용에 근거하여 張世祿(1938)의 견해를 南方音系說로 판단한다.

趙蔭棠(1936)과 張世祿(1938)에서 제기된 南方音系說은, 何九盈(1988) 丁玫聲(1989) 張竹梅(2007) 등의 후속 연구에서 注音體系 분석과 관련 문헌과의 비교 연구 등으로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학계에서 비교적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견해이다.

北方音系說로 간주되는 견해로는 王力(1963)과 李新魁(1983) 등이 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25) 張世祿《中國音韻學史》(上海, 商務印書館, 1938年, 初版 /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6年, 臺7版), (下), 232쪽.

混合音系說에 속하는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尉遲治平(1988, 1991)과 龍莊偉(1994) 등을 꼽을 수 있다. 尉遲治平(1988, 1991)은 沈龍綏의 《度曲須知》에 기재된 “北叶《中原》, 南遵《洪武》”<sup>26)</sup>라는 구절에서, 특히 “北叶《中原》”이라는 표현을 중점 대상으로 분석하여, 《中原音韻》과 南曲 曲韻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北叶《中原》”에서의 “《中原》”이 바로 周德清의 《中原音韻》을 지칭한다는 인식에 이견이 없었다. 《度曲須知》에 이 구절을 기재한 沈龍綏 본인도 별도의 저작인 《絃索辨訛》에서 해당 구절과 동일한 의미를 “周德清의 《中原音韻》”으로 풀어서 서술하고 있다.<sup>27)</sup> 하지만 尉遲治平(1988, 1991)은 沈龍綏의 저작을 포함한 여타 曲韻 관련 논저에서 詞曲 분석에 인용한 反切과 叶韻 등의 注音體系를 분석한 결과, “北叶《中原》”에서의 “《中原》”은 周德清의 《中原音韻》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王文璧 계열의 《中原音韻》修訂本”이라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北叶《中原》”의 “北”, 是南曲的北調, 與元北曲已有質的不同, 是南化變形了的北曲; 《中原》是王文璧系統的《中原音韻》修訂本, 是一種既不代表北音也不代表南音的南化不徹底的韻書。(“北叶《中原》”에서의 “北”은 南曲의 北調이다. 이는 이미 元代的 北曲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南化하여 변형된 北曲이다. 여기에서 《中原》이라고 하는 것은 王文璧 계열의 《中原音韻》修訂本으로, 北方音系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南方音系를 대표하는 것도 아닌, 南化가 완벽하게 진행되지 못한 韻書를 지칭한다.)<sup>28)</sup>

尉遲治平(1991)에서 언급한 “王文璧系統的《中原音韻》修訂本”은 王文璧의 《中州音韻》과 葉以震의 校訂本 《中原音韻》<sup>29)</sup>을 지칭하는데, 이 계열의 韻書에 반영

26) 沈龍綏 《度曲須知·入聲收訣》(中國戲曲研究所《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五,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59年, 第1版), 208쪽.

27) 沈龍綏 《絃索辨訛·凡例》: “顧北曲字音, 必以周德清《中原韻》爲準, 非如南字之別遵《洪武韻》也。(무릇 北曲의 字音은 필히 周德清의 《中原音韻》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南曲의 字音이 《洪武正韻》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中國戲曲研究所《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五,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59年, 第1版, 23쪽)

28) 尉遲治平 《“北叶《中原》, 南遵《洪武》”析義》(梁惠陵《中原音韻新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1年 第1版), 207쪽.

29) 葉以震의 校訂本 《中原音韻》은 書名이 “中原音韻”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동일한 書名



된 音韻體系는 “既不代表北音也不代表南音”이라는 결론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尉遲治平(1991)의 《中州音韻》 音韻體系에 대한 견해는, 北方音系도 南方音系도 아닌 混合音系라는 결론으로 판단된다.

龍莊偉(1994)에서는, 《中州音韻》의 反切과 叶音등 注音體系에 대한 분석을 통해, 《中州音韻》의 全濁聲母 분포 상황을 주요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入作三聲 부분에 注音된 聲母體系는 濁音清화가 반영되어 있는 北方音系에 해당하고, 舒聲韻의 注音에 사용된 聲母體系에서는 全濁聲母가 유지되고 있는 吳方言 중심의 南方音系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中州音韻》의 “入作三聲”部分的聲母與其舒聲韻部分的聲母，分屬兩個語音系統。入作三聲部分的聲母屬北音系統，它已經完成了濁音清化過程，……舒聲韻部分的聲母屬吳語系統，這個系統是存濁系統，全濁聲母在平聲和去聲中完整地保留着。《中州音韻》의 聲母는 “入作三聲” 부분과 舒聲韻 部分의 聲母가 두 개의 서로 다른 音韻體系에 해당한다. 入作三聲 部分의 聲母는 이미 濁音清化 過程을 완성한 北方音系에 속하고，……舒聲韻 部分의 聲母는 濁音 聲母가 유지되고 있는 吳方言의 音韻體系에 해당하는데，특히 平聲과 去聲에서는 全濁聲母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다.)<sup>30)</sup>

龍莊偉(1994)는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中州音韻》이 전반적으로는 聲母의 清濁對立이 유지되고 있는 南方音系를 반영하고 있지만, 上聲과 入作三聲 部分의 注音에서는 濁音清화가 완성된 北方音系가 반영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龍莊偉(1994)의 결론은 《中州音韻》의 音韻體系를 北方音系와 南方音系가 혼재하고 있는 混合音系로 규정한 견해로 판단된다.

이상의 南方音系說과 混合音系說에 대해서는 비록 南方音系說이 비교적 폭넓게 수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므로 향후 심층 분석이

의 周德清 《中原音韻》과는 별개의 저작으로, 王文璧의 《中州音韻》을 《中原音韻》의 체례에 따라 재편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聲調體系나 韻字 배열 등 외형상으로는 周德清 《中原音韻》의 체례를 복원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反切과 叶音 등의 注音體系는 王文璧 《中州音韻》의 音韻體系를 따르고 있다.

30) 龍莊偉 《〈中州音韻〉의 全濁音聲母》(《語言研究》, 武漢, 華中理工大學出版社, 1994年第1期, 總第26期), 118쪽.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中州音韻》의 音韻體系를 近代漢語 北方音系로 간주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추론의 근거 자체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北方音系說의 주요 사례로는, 王力(1963)과 李新魁(1983)에서의 《中州音韻》注音體系에 대한 인식과 활용 방식을 꼽을 수 있다. 王力(1963)과 李新魁(1983)의 견해는, 《中州音韻》이 광범위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당시 학계의 실정을 고려할 때 자료 운용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音韻體系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결여된 착오로 평가된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게 된 연유는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中州音韻》과 《中原音韻》의 외형적인 연계성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둘째는 《中原音韻》으로 집중된 北音學의 연구 동향에서 간접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겠다.

王文璧이 《中州音韻》을 편찬할 당시에는 曲壇의 흐름이 이미 南下하여 南曲이 우위를 점하던 시기였고, 南曲의 用韻을 위해 편찬된 《中州音韻》은 당연히 南方音系에 근거한 南曲 韻書였을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王文璧은 《中州音韻》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당시에도 여전히 曲壇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中原音韻》의 권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中原音韻》의 체례를 답습하면서 注音과 釋義를 增補하는 형식을 취했다. 물론, 외형적인 체례에서도 平聲의 陰·陽 폐지 및 小韻의 배치 등에서 소폭 변화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中原音韻》의 원형과 차이를 인식하기에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러한 외형상의 연계성이, 王力(1963)과 李新魁(1983)에서 《中原音韻》과 《中州音韻》의 音韻體系 차이를 혼동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으로 사료된다.

한편, 당시 음운학계의 주된 관심이 《中原音韻》 중심의 北音學으로 집중된 시기였다는 점에서, 《中原音韻》과 《中州音韻》의 音韻體系를 혼동하게 된 간접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겠다. 近代漢語 音韻體系의 면모를 파악하기에, 韻部와 聲調體系 및 각 小韻의 韻字 배열 상황 등 《中原音韻》 자체가 지니고 있는 자료적인 가치는 새삼 부언할 필요도 없이 절대적이지만, 《中原音韻》은 각 小韻에 注音이 결여된 취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注音體系의 결여는 구체적인 音韻體系 분석에서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에는 《中原音韻》의 “增補本”인 《中州音韻》의 注音體系가 시의적절한 대안으로 인식되었을 개연성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王力(1963)과 李新魁(1983)는 《中州音韻》에 표기된 反切과 마음<sup>31)</sup>으로

《中州音韻》 자체의 音韻體系를 분석하기 보다는, 《中原音韻》에 결여된 注音を 보완하는 대안으로 활용하여, 北音學 연구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보조 자료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王力(1963)과 李新魁(1983)의 해당 부분 서술은 이미 줄고<sup>32)</sup>에서 분석한 바 있지만, 논지 전개상의 편의를 위하여 다시 전재하기로 한다.

這部書於每一音的下面都附有反切或直音, 這種根據近代北音所作的音切是很值得重視的。(이 책(《中州音韻》——인용자 주)은 매 小韻에 反切 혹은 直音(叶音を 지칭함——인용자 주)을 부가하였다. 近代漢語 北方音系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러한 注音體系는 상당히 중시할 만한 가치가 있다.)<sup>33)</sup>

這種音切, 可以幫助我們了解元代的語音系統。(이러한 反切이나 叶音 등의 注音體系는 元代的 音韻體系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sup>34)</sup>

這部書因爲有反切和叶音表示各個小韻的具體讀音, 我們參用它來判定《中原音韻》各小韻的讀音就更加穩當可靠, …… 不過我們在應用這些切語時, 要注意其年代較《中原音韻》稍後就是了。(이 책(《中州音韻》)에서는 反切과 叶音으로 각 小韻의 구체적인 讀音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中原音韻》의 小韻에 대한 讀音을 판단한다면 한층 더 신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이러한 注音を 활용할 때, 시기적인 면에서 《中原音韻》보다 약간 늦은 것이라는 점만 유의하면 되겠다.)<sup>35)</sup>

이상에서 인용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王力(1963)에서는 元代 北方音系를 대표

- 
- 31) 反切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간혹 “ $\text{ㄷ} \circ$ ,  $\text{ㄷ} \text{聲}$ ”이라는 叶音의 형식으로 표기한 예도 있다. 예를 들면, 「東鍾韻·平聲」의 「中」小韻은 “之戎切”이라는 反切로 注音하였지만, 이에 상응하는 去聲의 「衆」小韻의 注音은 “ $\text{ㄷ} \text{中}$ , 去聲”으로 표기하여, 「中」小韻의 聲母와 韻母 부분을 차용하면서 “去聲”이라는 聲調를 명기하여 구분하는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 $\text{ㄷ} \circ$ ”라는 형식으로 표기된 注音 방식을, 현재 학계에서는 “叶音” 혹은 “直音”으로 명명하고 있다.
- 32) 배은한 〈王文璧《中州音韻》의 版本 問題 考察〉, 《中國語文論譯叢刊》, 서울, 中國語文論譯學會, 第18輯, 2006년 7월, 261-262쪽.
- 33) 王力《漢語音韻》(北京, 中華書局, 1963年, 第1版) (《王力文集》第5卷, 濟南, 山東人民出版社, 1986年, 第1版), 67쪽.
- 34) 王力《漢語音韻》(北京, 中華書局, 1963年, 第1版) (《王力文集》第5卷, 濟南, 山東人民出版社, 1986年, 第1版), 68쪽.
- 35) 李新魁《中原音韻音系研究》(鄭州, 中州書畫社, 1983年, 第1版), 127쪽.

하는 《中原音韻》과 明代 南方音系를 반영하는 《中州音韻》의 通時的·共時的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中州音韻》의 反切과 ㅁㅁ을 “根據近代北音所作的音切〔近代漢語 北方音系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注音體系〕”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착오로 말미암아, 《中州音韻》의 音韻體系를 《中原音韻》과 동일시하고, 元代 北方音系 분석에서 유력한 근거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李新魁(1983)에서는 “其年代較《中原音韻》稍後〔《中州音韻》은 시기적인 면에서 《中原音韻》보다 약간 늦었다.〕”라는 서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中原音韻》과 《中州音韻》의 通時的인 차이에 대해서는 인식하였지만, 音韻體系 자체의 共時的인 차이는 간과하여 《中州音韻》의 注音를 《中原音韻》의 각 小韻에 대한 注音으로 대응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李新魁(1983)는 이러한 추론에 근거하여, 《中原音韻》의 音節構造를 분석하는 「音節表」(126-214쪽)에서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小韻의 標音으로는 《蒙古字韻》 등의 자료를 참고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小韻에서는 《中州音韻》의 反切과 ㅁㅁ을 標音으로 대응하였다. 南方音系를 반영하는 《中州音韻》의 注音體系를 사용하여 北方音系인 《中原音韻》의 音韻體系를 분석하였으니, 자료 활용상의 착오에서 출발한 방법상의 오류는 해당 연구 성과의 분석 결과에 심각한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中州音韻》이 학계의 폭넓은 주목을 받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부 연구 성과에서는, 音韻體系의 혼동이라는 심각한 오류도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音韻體系의 通時的·共時的 인식에 혼동을 초래하는 일부 논지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바탕으로 자료 운용상의 적절성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 IV. 《中州音韻》의 著者에 대한 혼동

周德清的 《中原音韻》을 增補하여 편찬된 《中州音韻》의 著者가 王文璧이라는 사실은, 현재 학계에서 이견이 없는 기정사실로 인정된다.

그런데, 본고의 第II章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역대 叢書나 書目 등의 일부 文獻에서는 “中州音韻”이라는 書名의 저작에 대하여 著者가 周德清 혹은 卓從之로 기재되어 있거나, 王文璧의 《中州音韻》을 “增注中原音韻” 혹은 “增訂中州音韻” 등

별도의书名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中州音韻》의书名에 대한 혼동 현상이기도 하지만, 著者에 대한 혼동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中州音韻》의书名과 관련된 著者 문제의 혼동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본고의 第Ⅱ章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상술한 바와 같이 王文璧이 《中州音韻》을 편찬하였다는 사실은 현재 학계에서 이견이 없는 기정사실이므로 더 이상의 논의가 불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許德寶(1989)에서 《中州音韻》의 著者를 비롯한 정체성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기존 학설과는 확연히 다른 견해가 제시됨으로써, 音韻學界에서 《中州音韻》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許德寶(1989)에서 제시된 견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기존 학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쟁점 사항이 되었던 첫 번째 관점은, 王文璧은 기존의 “中州音韻”이라는 저작을 “校正”한 것이고, 이 기존의 “中州音韻”은 周德清이 편찬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즉, 각 韻字에 釋義와 注音이 표기된 《中州音韻》의 著者는 周德清이고, 王文璧은 周德清의 《中州音韻》에 이미 수록되어 있었던 釋義와 注音을 “校正”한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許德寶(1989)에서 이 견해를 추론하게 된 근거는, 우선 《中州音韻》에 기재된 “高安 周德清 編輯 ; 吳興 王文璧 校正”<sup>36)</sup>이라는 編著者 표기 사항을 유력한 근거로 인식하였다. 이 編著者 표기 사항 이외에도, 張疊의 〈中州音韻後序〉와 蔡清의 〈中州音韻序〉 등에서 周德清의 저작을 “中州音韻”으로 기재하고, “(王文璧이) 집안에 소장되어 있던 원본을 상세하게 수정하였다.”<sup>37)</sup>라고 서술한 사실을 주요 근

36) 《中州音韻》에 기재된 編著者 표기 사항은, 周德清을 “編輯”으로 표기하고 王文璧은 “校正”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기재하여, 《中州音韻》이 《中原音韻》을 底本으로 한 增補本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자 하였던 王文璧의 학술적 의도로 볼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中原音韻》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周德清의 영향력에 편승하여 《中州音韻》의 판로를 활성화하려는 출판업자들의 상업적 의도로 판단할 수도 있겠다. 이에 대하여 慧生(1991: 298)에서는 《中州音韻》의 板刻 및 출판을 담당했던 출판업자들의 상업적 의도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37) 張疊 〈中州音韻後序〉(初刊本《中州音韻》卷末): “缺者補之, 訛者正之, 音切註釋, 視舊本尤詳.(빠진 부분은 보충하고, 오류는 바로잡았으며, 注音과 釋義를 부기하여, 원본보다 더욱더 상세하게 되었다.)”

거로 제시하였다.

또 다른 근거로는, 周德清이 〈中原音韻正語作詞起例〉第15條에서 “逐一字解註《中原音韻》見行刊雕。〔한 글자씩 註解를 附記한 《中原音韻》을 刊각하여 출판한다.〕”라고 기록한 사실을 방증 자료로 삼았다. 許德寶(1989)는 이 구절의 “中原音韻”이라는 書名이 「訥庵本」과 「鐵琴銅劍樓本」 등의 《中原音韻》 版本에서는 “中原音韻”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嘯餘譜》에 수록된 版本과 「秘書閣手定 明版」<sup>38)</sup> 《中原音韻》에서는 해당 구절의 書名이 “中州音韻”으로 기재된 사실에 근거하여, 周德清이 〈中原音韻正語作詞起例〉第15條에서 언급한 “註解가 附記된” 저작을 周德清의 “中州音韻”으로 추정하는 것이다.<sup>39)</sup> 이러한 추론에 따라, 許德寶(1989)에서는 周德清이 “註解가 附記된” 《中州音韻》의 著者이고, 王文璧은 周德清이 편찬한 《中州音韻》에 “校正” 역할만 담당한 “校正者”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학계의 반론에 직면하게 되었던 許德寶(1989)의 두 번째 관점은, 周德清이 《中原音韻》 외에 별도의 註解本을 편찬했고, 이 註解本의 書名이 “中州音韻”인데, 周德清이 편찬한 註解本 《中州音韻》이 바로 현재 학계에서 실전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中原雅音》<sup>40)</sup>이라는 견해이다. 즉, 王文璧이 “校正” 작업의 底本으로 삼았던

蔡清 〈中州音韻序〉(重刊本《中州音韻》卷頭): “取家藏故本大加訂正, 視故本爲益精且詳。(집안에 소장된 원본을 대폭 수정하였는데, 원본보다 더욱더 완벽하고 상세하게 되었다.)”

- 38) 許德寶(1989)에 의하면, 《中原音韻》의 본 版本은 明·程允昌의 《南九宮十三調曲譜》에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許德寶 《〈中州音韻〉의 作者、年代以及同《中原雅音》的關係》(北京, 《中國語文》, 1989年 第4期), 298쪽, 註⑩ 참조.
- 39) 《中原音韻》의 版本은 「訥庵本」과 「鐵琴銅劍樓本」 등이 자료적 가치가 높은 版本으로 평가된다. 후에 별도의 叢書에 수록되는 과정에서 改作이나 板刻상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嘯餘譜本」과 「秘書閣手定 明版本」에 근거하여, 오히려 「訥庵本」과 「鐵琴銅劍樓本」의 기재 사항을 오류로 추정한 것은, 논리상 추론 과정이 전도된 것으로 판단된다.
- 40) 明·章黼의 《韻學集成》과 明·呂坤의 《交泰韻》 등에 단편적인 인용 사례만 남아있는 《中原雅音》의 실체에 대해서는, 刊行 時期와 著者 音韻體系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공인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다만, 刊行 時期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蔣希文(1978)은 南宋 시기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楊耐思(1978)는 明初 이전, 邵榮芬(1981)은 《中原音韻》 이후 1398~1460년 사이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何九盈(1986)은 학계의 기존 견해와 《字學元元》·《詩詞通韻》·《交泰韻》 등에 기재된 《中原雅音》 관련 사항을 분석하여, 《中原雅音》의 刊行 時期를 南宋 시기로 추정한 蔣希文(1978)의 견해에 동의하였다.

저작은, 세간에 《中原雅音》으로 알려져 있는 周德淸의 《中州音韻》이라는 의미가 된다. 許德寶(1989)는 《韻學集成》 등 각 문헌에서 산발적으로 발췌한 《中原雅音》의 韻字·釋義·音韻體系 등 관련 사항과 王文璧이 “校正”한 《中州音韻》이 상당한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는 추론에 근거하여, 《中原雅音》이 바로 《中州音韻》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상기 두 가지 관점으로 요약되는 許德寶(1989)의 견해가 발표된 후, 학계에서는 曾曉渝(1991)·龍莊偉(1991)·慧生(1991) 등이 연이어 許德寶(1989)의 결론에 대하여 전면적인 비평과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특히 慧生(1991)에서는 周德淸의 音韻體系에 대한 인식과 《中州音韻》에 반영된 音韻體系의 차이를 객관적 근거로 제시하고, 許德寶(1989)에서 제시되었던 각종 근거 자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周德淸이 《中州音韻》의 編者라는 許德寶(1989)의 결론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또한 曾曉渝(1991)와 龍莊偉(1991)에서는 각 文獻에 수록된 관련 자료와 韻字 수록 상황 및 音韻體系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中原雅音》이 바로 《中州音韻》이라는 許德寶(1989)의 결론에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이후 詹怡萍(2008)에서 《中州音韻》의 著者 문제를 객관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王文璧이 《中州音韻》을 편찬하였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고, 현재 학계에서는 王文璧이 《中州音韻》의 著者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치 않는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許德寶(1989)에서 제시되었던 결론은 慧生(1991)·曾曉渝(1991)·龍莊偉(1991) 등 후속 연구 성과에서의 객관적 자료 제시와 합리적인 분석 결과에 의해, 신뢰성이 결여된 역설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許德寶(1989)의 견해가 학계의 전면적인 반론에 직면하여, 그 결론에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으며 관련 논의는 일단락 지어졌지만, 이를 계기로 《中州音韻》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고조되었고, 다양한 각도에서 《中州音韻》의 정체성이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겠다.

## V. 結語

본고는 《中州音韻》의 정체성에 혼동을 초래한 기존 연구 성과의 논의를 검증하

고, 각종 문헌과 관련 자료의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당한 평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크게 王文璧 《中州音韻》의 書名·音韻體系·著者에 대한 혼동 현상과 이에 대한 검증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각 항목별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中州音韻》의 書名은, 周德清의 《中原音韻》을 “中州音韻”으로 지칭한 경우와 卓從之의 《中州樂府音韻類編》을 “中州音韻”으로 약칭한 경우 등에서 書名의 혼동 현상이 야기되었다. 일부 문헌에서 《中原音韻》을 “中州音韻”으로 지칭하게 된 원인은, 「中原」과 「中州」라는 용어가 “中國의 중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법상의 동일성에서 근원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또한, 《中州音韻》이 《中原音韻》의 增補本 형식을 취하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와 외형적인 유사성으로 인해 동일 著作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역대 문헌상에서 《中原音韻》의 書名을 “中州音韻”으로 혼용하거나, 《中州音韻》의 書名을 “增注中原音韻” 혹은 “增訂中州音韻” 등으로 표기하는 혼동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中州樂府音韻類編》과 《中州音韻》의 書名을 혼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근원은, 《中州樂府音韻類編》이 書名의 장황함으로 인해 흔히 “中州音韻”으로 약칭되면서 《中州音韻》과의 혼동 현상이 초래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書名의 혼동 현상은 해당 연구 성과의 학술적 성취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엽적인 문제로 판단되지만, 王國維의 《曲錄》과 顧聆森의 《嘯餘譜》 관련 부분 서술에 기재된 바와 같이 王文璧의 《中州音韻》을 卓從之의 저작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 자료 운용상의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둘째, 音韻體系에 대한 혼동 현상은, 南方音系の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中州音韻》의 注音體系로 近代漢語 北方音系를 분석하고자 하였던 연구 방법상의 오류를 초래하였다. 이 문제의 발단은, 《中州音韻》과 《中原音韻》의 외형적인 연계성에서 기인한 근본적인 원인과 《中原音韻》 중심의 北音學으로 집중된 연구 동향으로 인한 간접적인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音韻體系에 대한 혼동이 후속 연구에 오류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王力(1963)과 李新魁(1983)에서의 견해를 꼽을 수 있었다. 두 연구 성과에서는 《中州音韻》에 표기된 反切과 ㅁㅁㅁ으로 《中州音韻》 자체의 音韻體系를 분석하기 보다는, 《中原音韻》에 결여된 注음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활용하여, 北音學 연구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인식하였



다. 특히 王力(1963)에서는 元代 北方音系를 대표하는 《中原音韻》과 明代 南方音系를 반영하는 《中州音韻》의 通時的·共時的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中州音韻》의 音韻體系를 《中原音韻》과 동일시하여 元代 北方音系를 분석하는 유력한 근거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한편 李新魁(1983)에서는 通時的인 차이는 인식하였지만, 音韻體系 자체의 共時的인 차이는 간과하여 《中州音韻》의 注音符號를 《中原音韻》의 각 小韻에 대한 注音符號로 대응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音韻體系에 대한 인식의 오류는, 자료 운용상의 착오를 동반하게 되어 해당 연구 성과의 분석 결과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후속 연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셋째, 《中州音韻》의 著者를 周德清이나 卓從之로 혼동하였던 상황은, 《中原音韻》이나 《中州樂府音韻類編》과의 書名 혼동 현상과 일맥상통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학계에서는 객관적 분석과 검증을 통해 王文璧이 《中州音韻》을 편찬하였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다. 그런데, 許德寶(1989)에서는 기존 학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견해가 제시됨으로써, 《中州音韻》의 著者를 비롯한 정체성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許德寶(1989)의 견해는, 曾曉渝(1991)·龍莊偉(1991)·慧生(1991) 등의 후속 연구 성과에서의 객관적 자료 제시와 분석 결과에 의해, 신뢰성이 결여된 억설로 평가되고 있다. 비록 許德寶(1989)의 논지가 학계의 전면적인 반론에 직면하여 그 결론에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일단락 지어졌지만, 이를 계기로 王文璧의 《中州音韻》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정체성의 제반 문제를 다각도에서 검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다.

이상 논의를 종합해 보면, 기존 연구 성과에서 《中州音韻》의 정체성을 혼동하는 일부 논의는 《中原音韻》 혹은 《中州樂府音韻類編》과의 명확한 정체성 구분이 선행되지 않았기에 초래된 문제로 귀결된다. 이 세 韻書의 전승 관계와 명확한 경계 설정은 이미 학계에서 공인된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연구 성과에서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동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參考文獻】

#### 〔原典類〕

- 元·周德清《中原音韻》：各版本  
元·卓從之《中州樂府音韻類編》：各版本  
明·王文璧《中州音韻》：各版本  
明·王驥德《曲律》：《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本(北京，中國戲劇出版社，1959)  
明·沈寵綏《度曲須知》：《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本(北京，中國戲劇出版社，1959)  
明·程明善《嘯餘譜》：《續修四庫全書》本(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5)  
清·王國維《曲錄》：《海寧王忠愍公遺書》本(羅振玉等 觀堂遺書刊行會，1927-1929)

#### 〔論著類〕

- 姜聿華《中國傳統語言學要籍述論》北京，書目文獻出版社，1992  
寧忌浮《漢語韻書史(明代卷)》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9  
杜璟〈中州音韻的作者〉：《北平晨報·學園》第137期，1931. 7. 23  
羅常培〈中州音韻和十三韻〉：《天津益世報·讀書周刊》第16期，1935. 9. 19  
班昭《中國語言文字學通史》廣州，廣東高等教育出版社，1998  
배은한〈王文璧中州音韻의 版本 問題 考察〉：《中國語文論譯叢刊》第18輯，2006. 7  
배은한〈王文璧中州音韻의 注音體系 考訂〉：《中國語文論譯叢刊》第23輯，2008. 7  
배은한〈王文璧中州音韻의 聲母體系 一考察〉：《中國文學研究》第38輯，2009. 6  
白滌洲〈中原音韻與中州音韻之比較觀〉：《北平晨報·學園》第18期，1931. 1. 14  
石山福治〈考定中原音韻〉：東京，《東洋文庫論叢》第一，1925  
邵榮芬《中原雅音研究》濟南，山東人民出版社，1981  
楊耐思〈韻學集成所傳中原雅音〉：北京，《中國語文》1978年 第4期，1978. 11  
楊耐思《中原音韻音系》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1  
葉寶奎《明清官話音系》廈門，廈門大學出版社，2001  
汪經昌《曲韻五書》臺北，廣文書局，1961  
王力《漢語音韻》北京，中華書局，1963(《王力文集》第5卷，濟南，山東教育出版社，1986)  
王力《中國語言學史》太原，山西人民出版社，1981(《王力文集》第12卷，濟南，山東教育出版社，1990)  
龍莊偉〈論中原音韻與中州音韻的關係〉：北京，《中國語文》1991年 第1期，1991. 1  
龍莊偉〈中州音韻的全濁音聲母〉：武漢，《語言研究》1994年 第1期，1994. 5  
尉遲治平〈北叶中原南遵洪武析義〉：北京，《中原音韻新論》1991

- 李新魁《中原音韻音系研究》鄭州，中州書畫社，1983
- 李新魁《漢語音韻學》北京，北京出版社，1986
- 李新魁·麥耘《韻學古籍述要》西安，陝西人民出版社，1993
- 張世祿《中國音韻學史》上海，商務印書館，初版，1938 / 臺北，臺灣商務印書館，臺7版，1986
- 張燕〈中州音韻研究綜述〉：邢臺，《邢臺職業技術學院學報》第23卷 第6期，2006. 12
- 장재웅〈中州樂府音韻類編과 中原音韻의 소운 비교 연구〉：《中國語文學論集》第18號，2001. 10
- 장재웅〈中州樂府音韻類編과 中原音韻의 소운 수록자 차이 비교 연구〉：《中國語文學論集》第19號，2002. 2
- 張竹梅《中州音韻研究》北京，中華書局，2007
- 蔣希文〈中原雅音記略〉：北京，《中國語文》1978年 第4期，1978. 11
- 丁玟聲〈王文璧中州音韻研究〉高雄師範學院國文研究所 碩士論文，1989. 1
- 趙誠《中國古代韻書》北京，中華書局，第1版，1979 / 北京新第1版，2003
- 趙蔭棠〈中州音韻流源考〉：《北平晨報·學園》第13期，1931. 1. 7
- 趙蔭棠〈關於中原音韻與中州音韻〉：《北平晨報·學園》第20期，1931. 1. 16
- 趙蔭棠〈關於中州音韻〉：《北平晨報·學園》第140期，1931. 7. 28
- 趙蔭棠〈中州音韻各版本的關係與發生的次序〉：《北平晨報·學園》第258·259期，1932. 3. 4
- 趙蔭棠《中原音韻研究》上海，商務印書館，初版，1936 / 重印第1版，1956
- 佐佐木猛〈明·王文璧中州音韻の性格〉：京都，《均社論叢》第4卷 第1期，1977. 6
- 주성일〈明代 官話의 性質과 基礎方言 小考〉：《中國文學研究》第22輯，2001. 6
- 주성일〈조선시대 학습용 중국어와 明代 官話의 성질〉：《中國文學研究》第36輯，2008. 6
- 曾曉渝〈中原音韻就是中州音韻質疑〉：北京，《中國語文》1991年 第1期，1991. 1
- 詹怡萍〈嘯餘譜·中州音韻作者考敘〉：北京，《戲曲研究》第77輯，2008年 第3期
- 何九盈《中國古代語言學史》開封，河南人民出版社，第1版，1985 / 廣州，廣東教育出版社，第2版，2000
- 何九盈〈中原雅音的年代〉：北京，《中國語文》1986年 第3期，1986. 5
- 何九盈〈中州音韻述評〉：北京，《中國語文》1988年 第5期，1988. 7
- 許德寶〈中州音韻考〉北京師範大學中文系 碩士論文，1985. 7
- 許德寶〈中州音韻的作者年代以及同中原雅音的關係〉：北京，《中國語文》1989年 第4期，1989. 7
- 許德寶〈王文璧校正中州音韻的初刻年代和諸版本的關係問題〉：北京，《中國語文》

1991年 第1期, 1991. 1

慧生〈周德清不是中州音韻的編者〉: 北京, 《中國語文》1991年 第4期, 1991. 7

### 【英文提要】

This study purposed to analyze identity confusion related to the book name, sound system and author of Wang Wenbi's *Zhongzhou-Yinyun* and to suggest objective and rational evaluation through the review of various related literatures and materials.

First, confusion in book name appeared in the forms of confusion with Zhou Deqing's *Zhongyuan-Yinyun* and confusion with Zhuo Congzhi's *Zhongzhou-Yuefu-Yinyun-Leibian*.

Second, confusion in sound system caused an error in research method that tried to analyze the northern sound system of the Yuan dynasty with *Zhongzhou-Yinyun*'s phonetic notation system containing the elements of the southern sound system.

Third, confusion in author appeared in the form of confusion with Zhou Deqing or Zhuo Congzhi.

I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some discussions on confusion in the identity of *Zhongzhou-Yinyun* were caused by the absence of clear distinction of identity from *Zhongyuan-Yinyun* and *Zhongzhou-Yuefu-Yinyun-Leibian*. With regard to the clear definition of boundary among the three rhyme dictionaries, a conclusion agreed upon among scholars has already been drawn. For identity confusion issues caused by som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however, discernment is required for adoption or rejection in an objective and rational perspective.

【主題語】

Wang Wenbi, *Zhongzhou-Yinyun*, Zhou Deqing, *Zhongyuan-Yinyun*,  
Zhuo Congzhi, *Zhongzhou-Yuefu-Yinyun-Leibian*, Rhyme Dictionary,  
Sound System

王文璧, 中州音韻, 周德清, 中原音韻, 卓從之, 中州樂府音韻類編, 韻書, 音韻  
體系

투고일: 2012. 1. 15 / 심사일: 2012. 1. 20~2. 6 / 게재확정일: 2012. 2. 10